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협동심이 학업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 유 정¹⁾ 이 금 규²⁾ 김 유 정³⁾ 이 강 이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협동심과 학업열의에 따른 학업성취만족도를 알아보고 협동심과 학업성취만족도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협동심과 학업성취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제2차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IBM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과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 사례는 2,331개이며, 아동의 성별은 남아 1,163명, 여아 1,168명이었다. 연구 결과, 첫째, 학업성취만족도는 협동심 및 학업열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초등학교 5학년의 협동심이 학업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5학년의 협동심이 학업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열의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5학년의 학업성취만족도를 고취함에 있어, 아동의 협동심 및 학업열의를 증진하는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초등학교 5학년, 협동심, 학업성취만족도, 학업열의, 매개효과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4)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kangyil@s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 개인이 느끼는 학업 성취만족도 관련 담론이 학업성취도 관련 담론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학업성취는 학습결과의 총합으로 학교 과정을 통해 습득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포함하며(곽수란, 2006), 학업성취만족도는 학습을 통해 지식, 기술,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느끼게 되는 만족감이다(권은경, 2021a).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인지적 영역 외의 학업결과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성적을 판단 준거로 활용하며 그 외의 학습결과를 도외시해 온 경향이 있다(정주영, 2010).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인지적 학업성취는 단순히 학생의 인지적 발달 정도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사회경제적 복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되어(김광혁, 2010)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업성취만족도 또한 학습의 결과로서 학업성취도로 표방되는 인지적 성취와 같이 학업성취라고 볼 수 있으나, 기존 연구나 정책적 접근에서는 인지적 학업성취에 주로 집중하여 이를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연은모, 최효식, 2021; 이민경, 2021; 이성주, 최우수, 2021). 즉, 평가의 주체로 아동을 상징하고 성취 결과 그 자체보다 이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평가와 정서에 집중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는 그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명희, 유영란, 유지원, 2014). 특히, 학업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는 학업성취도 자체와도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왔으며(Pekrun, Elliot, & Maier, 2009), 학업 상황에서 부정 정서가 자주 유발될 경우 학업적 어려움과 학교 적응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정서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유지현, 2013).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와 성적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아동들은 학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나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학생이 경험하는 여러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학업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지, 황세영, 최홍일, 2020). 이때,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학업 부담 및 성적 등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40% 이상을 차지하여 그 수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중 초등학교 5학년은 중학교 입학 앞둔 초기 청소년 시기로, 이 시기에 느끼는 학업성취만족도는 교수학습과정을 촉진하는 요인이자 이후 학업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민정, 2011; De Vos & Soens, 2008; Ojeda, Flores, & Navarro, 2011)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학업성취만족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긍정적 자기평가를 토대로 학습 목표와 동기를 가지게 된다(주희진, 2011). 설정한 목표와 동기에 대한 성취 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스스로 더 큰 성장을 추구하게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적 기대를 기반으로 아동이 느끼는 학업성취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 중심 및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교육부, 2021a) 개인이 느끼는 학업성취만족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업성취에 만족할수록 학교생활만족도와 적응의 수준이 높고(심재희, 이기혜, 2018), 학생 주도의 자기 평가 및 피드백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이 밝혀졌다(김재철, 최종근, 2021). 더욱이, 학업성취만족도가 낮을 때 학습무기력이 형성되기 쉽다는 보고 또한 있어(권은경, 2021b), 학업성취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그 관계를 밝혀내어 이를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협동심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민역량이다. 교육부(2016)에 따르면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 및 존중하는 등의 실제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협력적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때, 협동심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으로, 개개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집단 구성원으로서 개인적인 성취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인구, 2003). 협동은 타인과의 관계, 상호작용, 의사소통, 참여와 책임 등을 강조하는 사회성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박지혜, 홍후조, 2018), 협동심은 성공적인 또래 관계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영효, 정주리,

2017). 교육 환경인 학교 현장에서도 학업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힘을 모아 과제를 수행하는 협력적 교육 및 협동 학습이 연구되고 있으며 주로 인지적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이 보고되어왔다. 구체적으로, 협동적인 상황이 개개인의 목표 지향적 행동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업성취의 향상을 야기하고(Slavin, 1986), 서로의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는 응집성이 학업성취로 이어진다는 보고가 있다(Cohen, 1994; Johnson & Johnson, 2009).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학업성취라는 학업 결과와 협동심의 관련성을 주로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이 자신의 학업성취 결과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평가는 논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협동학습이 구성원 간 상호 신뢰 및 협동을 바탕으로 개인의 학습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Johnson, Johnson, & Stanne, 2000)는 점을 토대로 학업성취에 대한 긍정적 자기평가와 협동심의 관련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팀 기반 학습이 개별 아동의 학습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선행연구(장우심, 2016)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강의식 학습방법(lecture learning method)과 비교하였을 때 협력적 학습방법(cooperative learning method)을 통한 학습에서 아동의 학습과 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Mohammadjani & Tonkaboni, 2015)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협동심이 발휘될 수 있는 학습 상황이 아동의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협동심과 학

업성취만족도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며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업열의는 학업과 관련된 마음 상태로서 높은 에너지와 열정, 몰입, 자부심과 행복을 특징으로 한다(Schaufeli, Martinez, Pinto, Salanova, & Bakker, 2002). 즉, 학업열의를 가진 아동은 학업 과정에서 헌신하고 몰입하며 효능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업열의는 개인의 내적 동기와 관련성이 존재하며(권미나, 이진숙, 2020), 학업성취의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다루어져왔다(Buzzai, Sorrenti, Costa, Toffle, & Filippello, 2021; Filce & LaVergne, 2015; Kuh, Cruce, Shoup, Kinzie, & Gonyea, 2008; Reyes, Brackett, Rivers, White, & Salovey, 2012). 학업열의가 높은 학생은 학업 결과에 대한 자기평가에 있어서도 내재적 동기를 토대로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의 학업열의가 낮다는 보고(이자영, 2013)와, 학업열의가 자신이 속한 환경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고, 저해될 수도 있다는 보고(권미나, 이진숙, 2020)에서 해당 시기 아동의 학업열의와 학업성취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학업열의를 증진할 수 있는 관련 변인 또한 밝혀낼 필요성을 알 수 있다.

협동심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학습은 또래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발달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의 학업열의도 향상시킨다(Van Ryzin & Roseth, 2021). 아동의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은 학업열의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Collie, Martin, Papworth, & Ginns, 2016), 구체적으로 부모, 교사, 또래와의 질 높은 관계는 아동이 느끼는 학업열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Liem & Martin, 2011; Mansour & Martin, 2009; Roorda, Koomen, Split, & Oort, 2011). 협동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서적, 지적 상호작용을 도모하기 위한 협동학습(Aronson, 1978)은 전통적 교수-학습방법에서의 과도한 경쟁이나, 이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감소시키며, 다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방해하기보다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서로를 학습자원으로 이용하며 상호 존중하는 학습을 수행하게 한다(박성익, 이희연, 이경숙, 2003). 이는 협동심을 바탕으로 하는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임규연의 연구(2011)에서는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집단 탐구활동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협동심이 학업과 관련한 개인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며, 학업열의에 앞서 협동심이 선행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협동심, 학업열의 및 학업성취만족도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협동심, 학업열의 및 학업성취만족도의 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주되게 진행되어, 협동심, 학업열의 및 학업성취만족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5학년 아동이 느끼는 학업성취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협동심과 학업열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아동이 느끼는 협동심이 학업성취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지, 협동심과 학업성취만족도의 관계에 학업열의가 매

개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두 가지 측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협동심은 학업열의를 높아지게 한다. 둘째, 초등학생이 스스로 학업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열의가 높아지면 학업성취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이 느끼는 협동심 수준이 학업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협동심과 학업열의의 순기능적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초등학생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긍정 정서인 학업성취만족도에 주목하여 이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학업성취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이 학업결과에 관하여 만족감이라는 긍정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느끼는 협동심, 학업열의는 학업성취만족도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느끼는 학업열의는 협동심이 학업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제2차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는 2018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이 패널 조사는 2018년에 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해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2차년도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아동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아동 설문과 부모 설문에서 모두 응답한 사례(3,518개) 중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하여 아동의 의견을 알 수 없는 사례 103개를 제외하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 1,084개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 사례는 2,331개이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1,163명(49.9%), 여아 1,168명(50.1%)이었다.

2. 측정도구

협동심

협동심은 그룹 활동 속 특정한 공동 목표에 도달하고자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함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협동심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에서 사용한 협동심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척도는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 최경준(2015)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에서 개발한 척도로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의 협동심 수준을 측정한다. 이는 집단축진(6문항), 팔로워십(3문항), 갈등문제해결(5문항)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을 통합하여 측정하였다. 집단축진의 문항 예시는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 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이며, 팔로워십의 문항 예시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이다. 갈등문제해결의 문항 예시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협동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협동심 14문항에 대한 Cronbach의 α 값은 .93이었다.

학업열의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학업에 능동적이며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상태를 뜻하며, 이자영과 이상민(2012)이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형학업열의척도 1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업열의는 헌신(4문항), 활기(4문항), 효능감(4문항), 몰두(4문항)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을 통합하여 측정하였다. 헌신의 문항 예시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이며, 활기의 문항 예시는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이다. 효능감의 문항 예시는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이며, 몰두의 문항 예시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업열의 16문항에 대한 Cronbach의 α 값은 .92이었다.

학업성취만족도

학업성취만족도는 아동이 지난 학기에 받은 성적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통해 학업성취에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학생은 지난 학기 자신의 학교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아동은 주관적으로 인식한 지난 학기 학업수행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과 잘 모르겠음(6점)으로 응답하였다. ‘잘 모르겠음’으로 측정한 문항은 무응답으로 판단하여 삭제 후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이 연구는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고찰하고 이에 대하여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삶의 만족도, 자기만족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김기년, 탁진국, 2018)와 학교급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성취만족도에 있어, 초등학교 중위소득 150% 이상인 아동이 초등학교 중위소득 50% 미만인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유민상, 2020)를 토대로 아동의 성별과 가구 소득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를 0, 여아를 1로 계산하였다. 가구 소득은 연구 대상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시 $\ln$

(가구 소득+1) 값을 이용하였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협동심과 학업성취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및 연구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고자 Cronbach의 α 값을 확인하였다. 셋째, 측정변수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

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협동심이 학업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version 4.0 (Hayes, 2022)을 통한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협동심과 학업성취만족도의 관계 속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한정해서 보기 위해, 아동 성별과 가정의 경제적 소득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협동심, 학업열의, 학업성취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의 기초 통계 분

표 1. 연구 변인들의 기초 통계 및 상관관계 ($N = 2,331$)

변인	a	b	c	d	e	f	g	h
1	a	1						
	b	.70**	1					
	c	.73**	.73**	1				
2	d	.38**	.41**	.40**	1			
	e	.38**	.32**	.37**	.58**	1		
	f	.38**	.40**	.38**	.55**	.53**	1	
3	g	.34**	.33**	.34**	.55**	.64**	.55**	1
	h	.24**	.30**	.26**	.37**	.26**	.52**	.31**
M	2.86	3.12	2.96	2.99	2.38	2.70	2.51	3.98
SD	.58	.56	.56	.56	.65	.63	.57	.83
Skewness	-.38	-.33	-.38	-.22	.05	-.16	-.14	-.52
Kurtosis	.61	.47	.68	.18	-.06	-.02	.34	-.05

주. 1: 협동심(a. 집단축진, b. 팔로워십, c. 갈등문제해결), 2: 학업열의(d. 헌신, e. 활기, f. 효능감, g. 몰두), 3: 학업성취만족도(h)

** $p < .01$.

석으로 학업성취만족도, 협동심, 학업열의의 평균과 표준 편차,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았으며,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협동심, 학업열의, 학업성취만족도의 관계에서 협동심과 학업열의의 하위 변수들 모두 학업성취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성취만족도와 협동심 및 학업열의 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업열의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학업열의의 하위 요인 중 효능감과의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관이 나타났다($r = .52, p < .01$). 협동심과 학업열의의 하위 요인 또한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중 협동심의 팔로워십($r = .41, p < .01$), 갈등문제해결($r = .40, p < .01$)과 학업열의의 헌신과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2.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협동심과 학업성취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검증

이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느끼는 협동심이 지각된 학업성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version 4.0(Hayes, 2022)을 통한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회귀 모형($F = 265.07, p < .001$)과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 모형($F = 151.80,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2 참조).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회귀 모형

은 25.5%(수정된 R 제곱은 25.4%),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 모형은 20.7%(수정된 R 제곱은 20.6%)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71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협동심이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협동심과 지각된 학업성취만족도 사이에서 학업열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때 협동심이 지각된 학업성취만족도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협동심과 지각된 학업성취만족도 사이에서 학업열의는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그림 1 참조). 구체적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협동심($\beta = .48, p < .001$)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협동심이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매개변수인 학업열의도 지각된 학업성취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0, p < .001$). 협동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동의 학업열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 협동심과 학업성취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N = 2,331)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F	R ² (adj R ²)
학업열의	(상수)	.95	.08		12.13***	< .001	265.07***	.26 (.25)
	아동 성별	-.01	.02	-.01	-.26	.789		
	가구 월 소득	.17	.03	.10	5.46***	< .001		
	협동심	.46	.02	.48	26.48***	< .001		
학업성취 만족도	(상수)	2.24	.14		15.50***	< .001	77.52***	.09 (.09)
	아동 성별	-.07	.03	-.04	-2.00*	.045		
	가구 월 소득	.28	.06	.10	4.81***	< .001		
	협동심	.44	.03	.27	13.56***	< .001		
학업성취 만족도	(상수)	1.61	.14		11.59***	< .001	151.80***	.21 (.21)
	아동 성별	-.06	.03	-.04	-2.05*	.041		
	가구 월 소득	.16	.05	.06	3.04**	.002		
	협동심	.13	.04	.08	3.84***	< .001		
	학업열의	.66	.04	.40	18.46***	< .001		
경로					B	S.E.	LLCI	ULCI
협동심→학업열의→학업성취만족도					.31	.02	.27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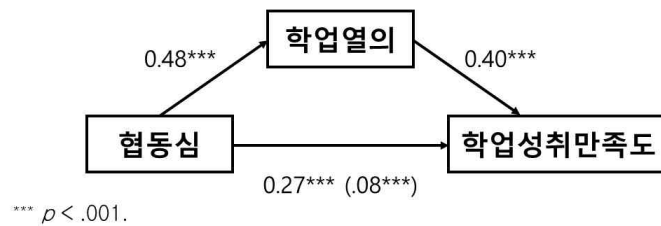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협동심과 학업성취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기 교육현장에서 협동심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 학습 및 협력적 교육의 취지를 지지하고, 학업 결과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어려움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자신의 학업 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통해 긍정 정서를 느끼는 학업성취만족도에 주목하

여, 이를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학업성취 중에서도 인지적 학업성취에 해당하는 학업성취에 주목하여 왔으나, 이 연구는 학업성취에 대해 만족감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학업성취만족도와 함께 비인지적 요인인 협동심, 학업열의와의 관련성을 밝혀 교육 현장, 부모 및 아동에게 개입이나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교육 현장에서는 협동심을 기반으로 한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수방법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부모 및 아동에게는 경쟁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협동심을 기반으로 학업과정에서 학업에 대한 열의를 느끼고 이후 학업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협동심 및 학업열의와 학업성취만족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협동심이 학업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셋째, 협동심이 학업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협동심은 아동의 학업성취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또래와의 그룹 활동에서 협동심이 높은 아동들이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팀 기반 학습을 통한 수업이 아동 개인의 학습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장우심의 연구(2016)와 맥을 같이하며, 학업성취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만

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아동의 협동심을 증진할 수 있는 그룹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상호작용 기회의 감소가 아동들의 사회정서 발달과 협동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속(한국대학신문, 2021. 1. 20), 협동심이 개별 아동에게 가지는 영향력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을 고안해야 할 시기적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학업열의는 협동심이 학업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한다. 이는 협동심이 학업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과 함께, 아동의 협동심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열의 수준이 높으며, 학업열의의 높은 수준이 학업성취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대인 관계에 대한 인식이 학업열의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Collie et al., 2016)와, 협력적인 학습 및 긍정적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정서 문제 감소 및 학업열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연구(Van Ryzin & Roseth, 2021)와 맥을 같이한다. 더불어 더 높은 성적을 받을수록 아동이 자신의 성적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Cherry, Ordóñez, Gilliland, 2003)에서 나아가 학업성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적 요인들의 관계를 구체화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 등 부모요인이 주로 주목되어 왔는데(이미라, 전향신, 2020; 최정윤, 임효진, 2021), 이 연구에서는 학업열의를 가지게 하는 동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개인 내적 변인인 협동

심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최근 미래 역량으로서 강조되어오고 있는 협동심 그 자체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이 중요시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는 협동심과의 관계를 밝혀내었다. 이는 또래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또래애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배현민, 배천웅, 2018)와도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학업열의와 학업성취만족도 관련 선행연구(김혜원, 장윤옥, 2016; 장윤옥, 정서린, 2017)에서는 학업스트레스 등 학업에 대해 아동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학업열의를 학업결과 및 이에 대한 정서의 종속변수로 바라본 것이다. 또한 권은경(2021a)은 학업성취만족도가 높을 때, 학업열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진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열의를 학업성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하고 검증한 바, 선행연구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반된 방향성의 연구결과들은 학업열의와 학업성취만족도가 순환적 구조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주요 상위권 국가인 대한민국,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일본, 핀란드 등 5개국을 비교·분석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에서 협동학습을 강조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학생은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중앙일보, 2022. 1. 3). 이에 대해 다음

과 같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먼저, 국가별 학업 평가 방식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순서 나열식의 학생 평가에서 벗어나서 절대평가 방식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 중 성적과 학력의 중요성으로 인해 학업성취에 대한 인식이 다른 문화권과는 구별된다(김의철, 박영신, 2004). 가령 핀란드에서는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성찰하는 부분을 평가영역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김병찬, 2019)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평가하는 방식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별로 협동학습을 구성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협동심이 학업성취만족도를 높인다는 이 연구결과에 따라 국내 교육현장에서 협동심의 하위 요인인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한 협력적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협동학습이 진행되는 방식에 있어 학업열의를 고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협동학습이 아동의 학업열의를 통해 학업성취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학업성취만족도 고취를 위해 학업열의(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2018)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제2차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협동심과 학업열의의 구체적인 하위 영역을 나누어 분석하지 않았으며, 학업성취만족도에 미치는 협동심과 학업열의의 종단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 학업성취만족도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할 필요성 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학업성취만족도가 한 문항으로 결정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차후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학업성취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한 문항으로 파악된 학업성취만족도의 측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하위 요인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먼저,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연구들은 많지만, 협동심이 아동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인 의의를 가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으로 시민역량인 협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에도(교육부, 2021b),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비대면 수업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제한되고, 고립된 공간에서 지내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학생들은 협동심 부족, 공동체 의식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추지윤, 이윤희, 2021) 협동심의 수준이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냈다는 것은 유의미하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주로 연구되었던 학업성취도에서 나아가, 아동이 자신의 학업성취 결과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평가인 학업성취만족도를 살펴 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관적으로 인식한 학업성취가 실제 학업성취도와 유사하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 및 그 결과에 대한 주관적 만족과 학업성취 결과의 높고 낮음은 항상 비례하지 않으며 학업성취 결과가 낮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에 비해 만족할 수 있고, 학업성취 결과가 높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백은경, 이용택, 이은경, 2018) 학업성취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때, 중학교 1학년보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경험하는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송영주, 2016),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의 학업열의가 낮았다고 보고되어 왔다(이자영, 2013). 이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중학교 입학 시기를 앞두고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낮은 수준의 학업열의를 보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인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학업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학교 입학 전부터 나타나는 경쟁 지향적인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래와 함께하며 느끼는 협동심과 개인 내적인 학업열의의 증진을 통한 학업성취만족도 향상이라는 건강한 방향성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명희, 유영란, 유지원 (20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고등학생의 지각된 교사태도,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교육과학연구*, 45(1), 181-203.

<https://doi.org/10.15854/jes.2014.03.45.1.181>

- 강인구 (2003). 협동학습과 협력학습 구조 비교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18, 183-197.
- 곽수란 (2006). 인문계 학생의 학업성취 결정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2), 1-29.
- 교육부. (2016). 교육과정 해설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1a).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1b).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세종: 교육부.
- 권미나, 이진숙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그림, 학업열의, 스마트폰 의존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및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29-44.
<https://doi.org/10.15284/kjhd.2020.27.2.29>
- 권은경 (2021a). 중학생의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업열의 사이에서 그림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12), 225-230.
<https://doi.org/10.14400/JDC.2021.19.12.225>
- 권은경 (2021b). 중학생의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Grit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10), 247-252.
<https://doi.org/10.14400/JDC.2021.19.10.247>
- 김광혁 (2010).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아동 발달단계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2), 35-65.
- 김기년, 탁진국 (2018). 한국 청소년의 연령 차이와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25(7), 119-143.
<https://doi.org/10.21509/KJYS.2018.07.25.7.119>
- 김병찬 (2019). 핀란드 학교의 학생평가 특징과 시사점. 서울교육, 63(245).
<https://webzine-serii.re.kr/핀란드-학교의-학생평가-특징과-시사점/>
- 김영지, 황세영, 최홍일 (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재철, 최종근 (2021). 자기성장평가모델이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인성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문화연구, 27(4), 449-468.
<https://doi.org/10.24159/joec.2021.27.4.449>
-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 최경준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원, 장운옥 (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4(5), 99-117.
<https://doi.org/10.7466/JKHMA.2016.34.5.99>
- 박민정 (2011). 일개 대학 신입생들의 학습형태, 전공만족도, 학습기술의 관계. 한국의학교육학회, 23(2), 83-93.
<https://doi.org/10.3946/kjme.2011.23.2.83>
- 박성익, 이희연, 이경숙 (2003). 협동학습 전략이 학업성취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실업계 고등학교 지리수업을 사례로 하여. 교육학연구, 41(1), 225-251.
- 박지혜, 홍후조 (2018). 협동 역량 증진을 위한

-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개선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36(3), 1-28.
- 배현민, 배천웅 (2018). 고등학교 신입생의 또래애착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5(1), 79-93.
<https://doi.org/10.15284/kjhd.2018.25.1.79>
- 백은경, 이웅택, 이은경 (2018).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기의 부모진로지도가 주관적 학업성취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3, 5-31.
<https://doi.org/10.17854/ffyc.2018.01.53.5>
- 송영주 (201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간 관계에서 기질요인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129.
<https://doi.org/10.18023/kjece.2017.37.2.003>
- 심재휘, 이기혜 (2018).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성별 및 학업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1), 199-225.
<https://doi.org/10.29318/KER.24.1.8>
- 연은모, 최효식 (2021). 학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간 관계: 가족 유형 및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5), 71-80.
<https://doi.org/10.5762/KAIS.2021.22.5.71>
- 유민상 (2020). 한국 아동들의 행복 격차. *보건복지포럼*, 283, 58-70.
- 유지현 (2013). 학업적 정서조절,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7(3), 715-738.
- 이미라, 전향신 (2020). 부모의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릿, 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와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779-805.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4.779>
- 이민경 (2021). 이러닝 환경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자의 인지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48(1), 1-26.
<https://doi.org/10.22804/jke.2021.48.1.004>
- 이성주, 최우수 (2021). 유아의 학습준비도, 학업능력과 초등학교 적응, 학업수행능력 간 구조적 관계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6(4), 223-242.
<https://doi.org/10.20437/KOAECE26-4-09>
- 이영효, 정주리 (2017).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39(2), 85-101.
- 이자영 (2013). 학년에 따른 학업열의의 잠재평균 차이 검증. *청소년학연구*, 20(2), 1-21.
- 이자영, 이상민 (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https://doi.org/10.17927/tkjems.2012.24.1.131>
- 임규연 (2011). 집단탐구 협동학습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협력적 자기효능감, 학업 성과의 관계.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2), 19-36.
- 장우심 (2016).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에 대한 팀 기반 학습 적용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16(12), 655-666.
<https://doi.org/10.5392/JKCA.2016.16.12.655>
- 장윤옥, 정서린 (2017).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조절효과. *중등교육연구*, 65(1), 195-223.
<https://doi.org/10.25152/ser.2017.65.1.195>
- 정주영 (2010).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6(1), 129-152.
- 주희진 (2011).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인과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2), 237-259.
- 중앙일보 (2022. 1. 3). 협동학습 시켰더니 학업성취도 낮아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7573#home>에서 2022년 1월 1일 인출
- 최정윤, 임효진 (2021).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 그릿과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921-950.
<https://doi.org/10.15703/kjc.16.2.201504.233>
- 추지윤, 이윤희 (2021). 중학생 협동심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영향요인 탐색. *교육문화연구*, 27(5), 521-540.
<https://doi.org/10.24159/joec.2021.27.5.521>
- 한국대학신문 (2021. 1. 20). 성균관대, “코로나19세대, 사회정서적 발달과 협동학습 비상”.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3352>에서 2022년 2월 14일 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유저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ronson, E. (1978). *Tile jigsaw dassroom* Beverly Hills, CA: Sage.
- Buzzai, C., Sorrenti, L., Costa, S., Toffle, M., & Filippello, P.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frustrati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42(5), 497-519.
<https://doi.org/10.1177/01430343211017170>
- Cherry, B., Ordóñez, L. D., & Gilliland, S. W. (2003). Grade expectations: The effects of expectations on fairness and satisfaction perception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6(5), 375-395.
<https://doi.org/10.1002/bdm.452>
- Cohen, E. (1994). *Designing groupwork: Strategies for the heterogeneous classroom*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Collie, R., Martin, A., Papworth, B., & Ginns, P. (2016).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ersonal best (PB) goals, and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 65-76.
<https://doi.org/10.1016/j.lindif.2015.12.002>
- De Vos, A., & Soens, N. (2008). Protean attitude and career success: The mediating role of self-manag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 73(3), 449-456.
<https://doi.org/10.1016/j.jvb.2008.08.007>
- Filce, H. G., & LaVergne, L. (2015). Absenteeism, educational plans, and anxiety among children with incontinence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85*(4), 241-250.
<https://doi.org/10.1111/josh.12245>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Johnson, D. W., & Johnson, R. T. (2009). An educational psychology success story: Social interdependence theory and cooperative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38*(5), 365-379.
<https://doi.org/10.3102/0013189X09339057>
- Johnson, D. W., Johnson, R. T., & Stanne, M. B. (2000). *Cooperative learning methods: A meta analysi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uh, G. D., Cruce, T. M., Shoup, R., Kinzie, J., & Gonyea, R. M. (2008). Unmasking the effects of student engagement on first-year college grades and persistence.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9*(5), 540-563.
<https://doi.org/10.1080/00221546.2008.11772116>
- Liem, G. A. D., & Martin, A. J. (2011).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academic and non-academic outcomes: Same-sex and opposite-sex peer effects and the mediating role of school engagement.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83-206.
<https://doi.org/10.1111/j.2044-8279.2010.02013.x>
- Mansour, M., & Martin, A. J. (2009). Home, parents, and achievement motivation: A study of key home and parental factors that predict student motivation and engagement. *The Australian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ist, 26*(2), 111-126.
<https://doi.org/10.1375/aedp.26.2.111>
- Mohammadjani, F., & Tonkaboni, F. (2015). A comparison between the effect of cooperative learning teaching method and lecture teaching method on students' learning and satisfaction level.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8*(9), 107-112. <https://doi.org/10.5539/ies.v8n9p107>
- Ojeda, L., Flores, L. Y., & Navarro, R. L. (2011).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cademic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1), 61-71.
<https://doi.org/10.1037/a0021687>
- Pekrun, R., Elliot, A. J., & Maier, M. A. (2009). Achievement goals and achievement emotions: Testing a model of their joint relations with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1), 115-135.
<https://doi.org/10.1037/a0013383>
- Reyes, M. R., Brackett, M. A., Rivers, S. E., White, M., & Salovey, P. (2012). Classroom emotional climate, student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4*(3), 700-712.
<https://doi.org/10.1037/a0027268>
- Roorda, D. L., Koomen, H. M. Y., Spilt, J. L., & Oort, F. J. (2011). The influence of affective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on students'

- school engagement and achievement: A meta-analytic approa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1(4), 493-529.
<https://doi.org/10.3102/0034654311421793>
- Schaufeli, W. B., Martinez, I. M., Pinto, A. M., Salanova, M., & Bakker, A. B.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https://doi.org/10.1177/0022022102033005003>
- Slavin, R. E. (1986). *Using student team learning: The Johns Hopkins team learning project*.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 Van Ryzin, M. J., & Roseth, C. J. (2021). The cascading effects of reducing student stress: Cooperative learning as a means to reduce emotional problems and promote academic engagement.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1(5), 700-724.
<https://doi.org/10.1177/0272431620950474>
- 1 차원고접수 : 2022. 01. 10.
수정원고접수 : 2022. 02. 15.
최종게재결정 : 2022. 03. 23.

The Effects of Cooper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of Fif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Park, Yookyeong Lee, Keumkyu Kim, Yoojung Lee, Kangyi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oper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on the relation between cooper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of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second survey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4th grade cohort, carried out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using IBM SPSS Statistics 26.0 program and SPSS Process Macro respectively. Verification was performed. The final analysis examined 2,331 cases, consisting of 1,163 boys (49.9%) and 1,168 girls (50.1%).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ooperation and academic engagement. Second, the effect of cooperation of fifth graders on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was positively significant.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was significant on the effect of cooperation of fifth graders on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intervention to promote children's cooperation and academic engagement in promoting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of fifth graders, early adolescence.

Keywords: fif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cooperation,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academic engagement, mediating effect